

이미영 원장의 생활중국어

시간 명사

秒 : miǎo 초
 分 : fēn 분
 点 : diǎn 시
 Zuótiān jīntiān míngtiān měitiān tiāntiān
 昨天 `今天 `明天 `每天 `天天 :
 Yīyuè èryuè
 一月 `二月.....
 Qùnián jīnnián míngnián
 去年 `今年 `明年 :

답:

- Wǒ bādiǎnbàn shàngbān.
 1. 我八点半上班 °
 Wǒ měitiān dōu yùndòng.
 2. 我每天都运动 °
 Wǒ wǔyuè qù zhōngguó.
 3. 我五月去中国 °
 Wǒ míngnián xuéxí hànyǔ.
 4. 我明年学习汉语 °



위치: 시간명사+주어 / 주어+ 시간명사

연습:

- 저는 8:30에 출근합니다.
- 저는 매일 운동을 합니다.
- 저는 5월에 중국에 갑니다.
- 저는 내년에 중국어를 배울 겁니다



■ 씩씩중국어교습소

▲수업대상 - 유아/초·중·고생/성인 △위치: 평택시 장당동 631 2F
 ▲수업방식 - 1:1원어민 맞춤수업/회화 △T: 031-662-1119
 수능중국어/HSK·TSC·BCT △H: 010-6359-1662

평성노인복지관

‘환경愛빠지다’ 어르신 봉사단 직접 만든 비누 전달하며 캠페인

평택복지재단 산하 평성노인복지관(관장 김태형)은 지난 12월 7일 환경지킴이 봉사단 ‘환경愛빠지다’ 봉사단 어르신들과 함께 수질오염 해결 캠페인 ‘우리가 함께 Green 세상’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환경캠페

인은 수질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깨끗한 물을 위해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다짐한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명을 한 사람에게는 봉사단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천연비누를 전달했다.

봉사단 어르신 중 한 분은 “나

이 든 내가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니 더 젊어지는 것 같고, 환경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환경愛빠지다’ 봉사단은 환경을 사랑하며 지키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올해 만들어진 봉사단으로 현재 15명의 어르신이 가입돼 있으며 내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 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정미라 기자

mamuik@hanmail.net



아하! 재미있는 우리말 어원

미망인

본디 생겨났을 때의 뜻과는 다르게 지금 쓰이는 말들이 있다. 말에도 생명이 있는 것이므로 세월의 흐름 따라 뜻에 가치를 채가는 것이야 당연하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잘못 가지 쳐서 쓰이는 사례도 없지 않다. 우리가 흔히 쓰고 듣는 ‘사모님’의 경우도 그렇지만 ‘미망인’(未亡人)이란 말도 그 경우이다.

‘미망인’이란 말은 한자의 뜻으로 새겨 본다면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 된다. 그 뜻 그대로 이 말의 시작은 아직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칭이었다.

‘좌전’(春秋左氏傳)에 이런 얘기가 있다.

초(楚)나라 영윤(令尹:재상)인 자원이(子元)이 돌아간 문왕(文王)의 부인을 유혹할 양으로 부인의 궁전 옆에 자기 관사를 짓고 은(殷)나라의 탕왕(湯王)이 만들었다는 만(萬)이라는 춤을 추게 하며 풍악을 읊었다.

이에 문왕 부인이 말했다.

“선군(先君)은 이 무악(舞樂)을 군사 훈련 때에 한해서 썼다. 이제 영윤이 이것을 원수 갚는 일에 쓰지 않고 이 미망인 옆에서 하고 있으니 이상하지 않은가?”

부인의 시종(侍從)이 이 말을 자원에게 고했다. 자원은 여기서 마음을 돌려 수레 6백 대를 끌고 정(鄭)나라로 쳐들어간다.

미망인이란 말은 여기에 처음 나온 것인데 과부가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 ‘좌전’에는 그 밖에도 몇 군데 더 이 말이 쓰이고 있지만, 어느 것이든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여필종부(女必從夫)의 냄새까지 깔린 말이고 보면 더 더구나 오늘의 쓰임에서는 생각해 볼 대목이기도 하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목숨이라는 자칭을 남이 쓴다고 할 때는 사실 말뜻이 이상해진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 있소’ 하는 힐책(詰責)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누구누구의 미망인이 타계했다고 하는 기사는 ‘제 남편이 죽었는데도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더니 이제야 눈을 감았군’ 하는 이죽거림을 곁들인다고도 할 것이다.

물론 말은 현실에서의 쓰임이 중요하다. 그렇게 근본을 따지기로 들자면 잘못 쓰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과부’를 높이면서 쓰고 있는 ‘미망인’을 굳이 맞출 게 있느냐는 말도 그래서 나올 수는 있겠다.

그렇다고는 해도 ‘미망인’의 경우는 근본을 캐보자니 상대방에게 너무 실례가 되어서 걸린다. 일반적으로는 ‘미망인’할 데에 ‘부인’(夫人)으로 같음한다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없다.

〈출처: 박갑천(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정답중고 연합 봉사동아리’

평성노인복지관·장애인주간 보호센터에 나눔의 손길 전해

평택복지재단 산하 평성노인복지관(관장 김태형)·평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김사무엘)는 12월 7일 2017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법인 청담학교 중·고 연합 선제단 봉사동아리 나눔실천행’으로부터 후원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품들은 학생들이 직접 영양갱 400개와 탈취제 80개 등 후원품 제작에 참여하고 후원품을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장애인주

간보호센터에 직접 전달해 작은 손길 하나에도 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평택복지재단 김학연 이사장은 “교육과 복지가 함께해 서로 Win-Win 할 수 있었던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봉사동아리를 지도하는 주은정 교육복지사는 “이번 후원품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아서 매우 기뻐다”며 “아이들과 함께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